

시민들이 본 죄와 벌…판사,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다

광주지법서 모의재판…시민 121명 배심원 참여

대학생들 검사·변호사·피고인·피해자 역할
성폭행범 처벌 단호…설문조사보다 형량 높아

“사실상 직속 상관으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연약한 청소년 인턴 사원을 힘으로 제압, 성폭행해 씹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준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검사)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학 학자금으로 모아둔 1000만원을 지금,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이뤄졌으며 동종 전과도 없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 자취방으로 갔고 서로 가벼운 스킨십도 나눴던 정황 등도 참작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시오.”(변호사)

20대 미혼 남성이 인턴 사원인 여성 청소년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자취방으로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섰다.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처벌을 내릴까, 판사와 일반 시민들이 내리는 형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

29일 오후 광주지법 3층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모의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마다 끊이지 않았던 판사의 양형(量刑) 기준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간격의 차이를 알아보고 좁히는 계기로 삼기 위한 자리였다.

마욱현 부장판사가 재판장, 심우승 판사가 배석 판사로 나서는가 하면, 대학생들이 직접 검사,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역할까지 하며 추궁하거나 변호하는 등 실제와 흡사한 재판 과정을 보여줬다.

피고인과 피해자 역할을 맡은 남·녀 대학생들은 검사와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급박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데 대한 반성의 눈물을 쏟는 등 ‘열연’했고 재판부도 피해자 신문을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하지 말아라”며 경고하는 등 현실감 높은 재판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20대 여성부터 60대 남성까지 121명의 다양한 시민들도 방정석에서 재판 전 과정을 지켜보고 적정한 양형을 고민하는 모의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재판 뒤 조별로 나눠 1시간여의 토론 끝에 모의배심원들이 내린 처벌 수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년 6월~3년의 형을 선고 하되 형의 집행을 3~5년간 유예)가 71.9%로 가장 많았다. 모의 재판 전 진행된 시민 4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66%)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모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이 법원을 자주 찾아 재판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과 판사의 법 감정 간격을 좁히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범조문에 얽매인 자판기식 판결’, ‘전관예우(前官禮遇)’,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와 같은 불합리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모의재판 뒤 열린 시민토론회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해영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임선숙 변호사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사법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판결로만 말한다’는 원칙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중요 판결, 양형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 등에 대해서는 사회를 향한 적극 설명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은 “판사들 스스로 국민 법 감정과 법원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하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나 모의 배심 결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읽고 꽃이 시기를 달리하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워 사랑을 받는 상사화처럼 늘 국민의 소리를 가슴에 담고 노력해 국민 모두의 사랑과 공감을 받는 재판이라는 꽃을 피우는 데 힘을 갖”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301호 형사대법정에서 모의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은 대학생이 검사복을 입고 시민 배심원들을 향해 피고인 범죄 혐의 등을 설명하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도VTS내 CCTV 증거 채택 위법성 공방

검찰서 영상 공개 밝히자

변호인 “위법 수집” 제지

목포해경 소속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CCTV 설치 위법성 문제가 쟁점화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김모

(45)씨 등 진도 VTS 소속 해경 13명(6명 구속기소)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일정과 증인·피고인 신문 등 공판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VTS 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가 논란이 됐다.

검찰이 향후 공판 기일에서 4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피고인측 변호인은 “위법 수집된 증거”라며 제

지하고 나섰다.

검찰 입장에서는 CCTV를 통해 2인 1조로 구역에 절반씩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한 사람이 도맡는가 하면(직무유기), 부실한 근무 정황을 담은 화면을 삭제하고 혼자서 작성한 교신일지를 두 명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을 입증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핵심 증거였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직무를 감시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설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그 화면을 삭제한 것도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를 전제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제한한 개인정보 보호법 25조를 근거로 사무실 CCTV가 위법한 시설이라는 변호인 주장과 VTS 사무실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된 장소가 아니니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김현 의원 내달 3일 출석 통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의협력본부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TV)에 폭행 장면이 있는 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진도 군민들 이주 요구에

실종자 가족 대책위 호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최근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체육관을 비워달라는 진도군민들의 요구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29일 ‘진도체육관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10명의 실종자가 잠들어 있고 가족들은 잠 못 이루며 고통속에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아픔을 헤아리고, (가족들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진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지 못해 군민들이 직접 찾아와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진도 체육관을 임시 거처로 마련해주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재난 수습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군민들이 이주 장소로 지목한 팽목항 등에 대해서는 “바다를 보고 오열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가 보이지 않는 체육관에 머무는 것”이라며 반

아들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실종자 가족 역시 진도 군민이 처한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실종자 가족과 진도 군민, 정부(법정부사과대책본부)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도 군민대책위는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조만간 실종자 가족들과 군민대책위, 정부 관계자가 만나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진도 군민들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급우 휴대폰 훔쳐 판 철부지 중학생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던 친구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내다 판 철부지 중학생이 경찰서행.

○~2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16)군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B중학교 교실에서 C(16)군의 휴대폰을 훔친 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을 올린 혐의.

○~이들은 C군이 우연히 중고사이트에 게재된 글과 휴대폰 사진 등을 보는 바람에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휴대폰을 훔쳤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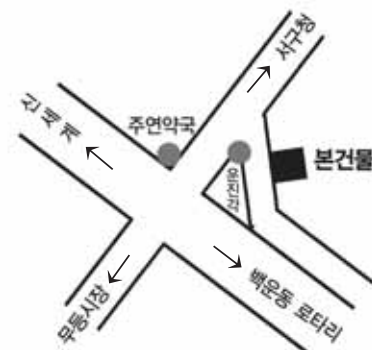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전각 4거리 운전각 건물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일반/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임
→ 대지 전체, 건물 1/3 지분 낙찰
→ 건물 1/3 지분 일반 매입
→ 건물 1/3 지분 낙찰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 전체 올수리 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 있음
■ 공인 중개사 공동 중개 환영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부동산 경매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10억원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 29평 -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형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 - 1억원 정도
매매가 - 72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 - 20층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 - 3억5000만원
매매가 - 2억5500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